

<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* 새벽 설교를 할 때는

항상 <주일말씀 주제>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,
그다음에 <잠언>을 전해 줘야 된다.

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

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

잠언을 한 절,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.

1. <안 계시던 성령님>도 찾고, 찾고, 찾으시면 오신다. 오셨을 때 같이 행하면, 무(無)에서 유(有)로 ‘창대한 역사’를 이루게 된다.

2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‘무(無)의 존재자’와 같다. 인간이 <삼위>를 찾으시면 역사하시니, 그때 ‘그 존재하심’을 알게 된다. 그러다 합당하면 상징적으로 보이기도 하신다.

3. <메시아>도 ‘실 가닥 같은 데’서 시작하여 <천국으로 가는 길>을 내고, 후에 거기에서 또 <황금천국으로 가는 길>을 냈다.

마치 <성령 길>을 만들 때 ‘소로 길’을 내고, 그다음에 ‘흙길’을 내고, 그다음에 ‘자갈을 깔 길’을 내고, 그다음에 ‘콘크리트길’을 내고, 그다음에 ‘아스팔트길’을 낸 것같이, <천

국 길>을 다니다가 <더 좋은 황금천국 길>을 낸 것이다.

4. <처음>에, <구약 때>부터 ‘황금천국의 길’ 이 열린 것이 아니다. ‘실 가닥 같은 종의 길’ 로 시작해서, 후에 ‘자녀 길’ 로 점점 차원이 높아지다가, 마지막에 ‘신부 길’ 로 성약역사가 이루어지고, <결국>에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‘황금천국 세계’ 가 이루어졌다.
5. <처음>에 ‘아는 사이’ 로 지내다가, 그다음에 ‘심부름시키는 사이’ 로 지내다가, 그다음 ‘형제’ 같이 지내다가, <결국>에는 ‘애인’ 이 되어 평생 같이 살게 되듯이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>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오셨다.
6. <집>을 지을 때도 - 하다 말면, ‘짐승이 사는 집’ 이 되고, - 끝까지 하면, ‘왕궁’ 도 되고, 나름대로 ‘천궁’ 도 된다.
7. <끝까지> - ‘희망’ 으로, ‘강한 마음’ 으로 하여라.
8. 하나님은 <끝>에서 ‘네가 하는 일’ 을 지켜보신다. 끝까지 가면, 하나님을 만나 ‘신’ 이 되어 살게 된다.
9. <신의 경지>는 ‘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만나서 사는 단계’ 다.

10. <무(無)>에서 시작하면, ‘창조자’가 된다. <유(有)>에서 시작하면, ‘제2 창조자’가 된다.
11. (하나님) <나 여호와>가 ‘아무것도 없는 데’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듯이, <너>도 ‘아무것’도 없어도, ‘혼자’라도 행하여라. 하다 보면 ‘할 일’이 보이고 생각나고, 결국 ‘창대한 역사’를 남게 된다.
12. <무(無)에서 유(有)를 창조하는 자>가 많이 얻고 누린다.
13. <하나님과 성령님>은 무(無)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행하신다.
14. <하늘>에서 받아서 하려고만 말고, <하늘 아래,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 안>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살면, 무(無)에서 유(有)를 창조하는 만큼 창대해진다.
15. 편한 만큼, 올라가기는 어렵다. - <육>이 편하면, 그만큼 ‘영’에 속해서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.

고생되고 편하지 않은 만큼, 올라가기 쉽다. - <육>이 고생돼도 ‘영’에 속해서 하기 때문이다.
16. 알고 보면, 사람들은 저마다 <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, 맨땅>에서 시작하여 오늘날같이 만들고 살게 됐다.

17. 성령과 함께 무(無)에서 유(有)를 창조하여라.
18. “하면 된다.” - 이 한마디 말씀이 ‘인생의 자본’ 이다.
19. <악>으로 하면, 때가 되어 자동적으로, 행한 대로 받게 되는 ‘하나님의 심판’ 이 있다. <악>은 하면 할수록 ‘소돔 땅’ 같이 불바다가 되고, ‘그 영’ 도 불바다로 가고 만다.
20. 이 잠언을 쓸 때도 <무(無)>에서 시작했다. 써 놓으니, <온 만민에게 전할 하늘의 위대한 말씀>이 됐고, <하나님과 성령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성공 비법>이 됐고, <평생 동안 거울이 되는 말씀>이 됐다.
21.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고 나서, ‘잠언을 안 썼으니, 하나라도 쓸까?’ 했다. <처음>에는 ‘잠언을 쓰고 싶은 마음’ 도 전혀 안 들었고, ‘잠언’ 이 생각나지도 않았고, 성령님이 주지도 않으셨다. 그래도 혼자서 ‘잠언 하나’ 를 쓰고, 또 쓰고, 또 쓰니, <결국>에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같이 쓰게 됐다. 계속 쓰면, ‘잠언 백 개’ 도 ‘천 개’ 도 연속해서 무한히 나오게 된다. 그러므로 너도 이같이 무(無)에서 유(有)를 창조하여라.